

금강회 우란분절 정진 회향

19~21일 3일간을 우란분절 정진기간으로 정하고 점심시간과 일과 이후 시간을 이용해 불공을 올린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장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1일 회사내 금강원에서 우란분절 특별정진을 회향했다. 이날 지도법사 증악스님(대구 보리사)과 회향 및 가족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08배와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금강메아리 복계산 산행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8일 강원도 철원 복계산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했다. 2시간여의 산행에 이어 복계산 정상에서 열린 법회에는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금강메아리는 9월 1일 경북 봉화 청량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이날 청량산도 참배한다. (02)730-1080



서초반야회 천수경 강좌

법조인 불자들의 모임인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는 21일 서울 염곡산 대성사에서 일산 원각사 정각스님의 강의로 천수경 강좌를 가졌다. 반야심경, 금강경에 이어 천수경 강좌를 시작한 서초반야회는 매일 한차례 경전 강좌를 결한 법회를 열고 있다. 박홍우(서울 북부지원 부장판사) 총무는 "경전 강좌는 회원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02)722-4162

전산통신망
회보·소식지
불교계 신문
i메신저
e-메일

춘천시 서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박연순(45) 씨는 시청 전산통신망 게시판에 올라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시청 도반회에 가입했다. 박씨는 출근하자마자 전산통신망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부처님 말씀, 큰스님 법문 등을 검색해 뒤 하루를 시작한다. 수협중앙회 최은이(41) 씨도 사내 전자결재망에 오른 경구(經句)를 읽고 한회심을 느껴 불자회 가입신청서를 썼다.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1계 나상인 경사(37)는 경찰불교회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경찰신문〉을 보고 발심을 일으켰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불자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많지 않다. 때문에 직장불교회는 불교와 모임을 일반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각의 홍보방법을 선보인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사내 전산네트워크다. 공무원, 경찰청, 한

직장 포교 "이렇게 하세요"



직장 불교단체들은 불교와 모임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각의 홍보방법을 선보인다. 사진은 공무원불자연합회 박연순(가)씨가 동화회관에 부처님말씀을 올리는 모습.

전, KT, 금융권 등이 대표적. 지난해 1월, 2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창립한 춘천시청 도반회는 청내 전산통신망을 통해 불교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1년 6개월만에 회원은 50여명을 넘어섰다. 춘천시내 사찰을 순회하며 매일 한차례 열고있는 법회에 매년 4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해 시청 동아리 모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보도 홍보에 많이 활용된다. 서울 이산병원, 철도청, 지하철공사 법우회 등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

이를 나눠주며 회원가입을 이끌고 있다. 직원보다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이다. 이산병원 법우회는 매주 부처님 말씀을 담은 주보를 각 병실에 배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불교와 법우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불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한다. '메신저'라는 사내 전자결재망과 노동조합 소식지, 〈수산신문〉 등에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메신저'에는 매주 부처님 말씀과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우리 모임에선

구미시청불자회
봉정암 성지순례

큰스님 법문, 교리를 게재해 일반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메신저'에 홍보를 위한 글을 읽고 불자회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10여명.

자신이 가진 5%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도봉경찰서 전 직원들이 알고 있을 만큼 잘 알려진 경찰회의 활동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 노력봉사, 유지원 제도 등 '실천하는 경찰상'을 세우고 있다. 2000년 5월 12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50명을 넘어섰다.

전남 강진경찰서 불교회는 불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이용한다.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신문을 한부씩 비치하고 있는 것. 부처님 말씀을 전단으로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메일, 일반직원도 참가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통해 인지도도 높이기도 한다.

도봉경찰서 불교회 고광선 회장은 "일반직원들에게도 법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직장불자들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는 31일 설악산 봉정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날 순례에는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미시청불자회는 매 분기마다 성지순례를 갖고 구미시청 불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실행계획을 듣고 있다.

석불선양회

홍성 상하리 미륵불 참배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기인)는 9월 8일 충남 홍성 용봉산에 소재한 상하리 미륵불과 신경리 마애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개최한다. 또 인근의 용봉사에 들러 참배하며, 명상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석불선양회는 공양물 헌공, 예불,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석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불교산악회

법주사 성지순례·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9월 8일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난다. 속리산 세심정과 보현재, 문장대 등을 거쳐 법주사에 들러 법회 봉행과 문화재를 관람할 예정이다.

불자교정인련 간부수련회

9월 7~8일 백양사에서

전국불자교정인련연합회(회장 오희창)는 9월 7~8일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하계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30여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정인 불자 200여명이 동참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수행정진을 통해 재소자 포교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흥, 순천, 군산교도소 등에 불자모임이 없는 점을 감안, 재소자 포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호남지역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조직 활성화 및 재정확보' '지회와 불교교화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회원 배기'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한 토의와 실행사례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오희창 회장은 "이번 수련회는 전국 교정인 불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교기법을 공유하고, 재소자 포교에 더욱 매진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라며 "이를 위한 교정전문가들의 특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세무사불자회

봉은사에서 첫 합동법회

국세청 보리회와 한국세무사불자회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갖는다.

이번 합동법회는 조세업무 불자회간 교류의 물꼬를 여는 첫 모임이다. 특히 최근 동일직종간 불교단체들의 연합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지도법사 문제와 관련해 법회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봉은사 측에 협조를 요청,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매일 둘째주 목요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세무사불자회 정구정 회장은 "이번 합동법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불자연합회 불자들은 중국 서안의 대표적인 사찰인 법문사를 참배했다.



전남도청 불자회들이 중국 소주 한산사에서 기념촬영했다.

공불련·전남도청 불자회 중국성지 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전남도청 불자회는 한국에 불교를 전래한 중국의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12~17일 중국 대동의 운강석굴 현공사, 오대산 탐원사·현동사, 서안 법문사·대안탐, 북경 자금성 등을 참배한 공무원불자연합회 소속 40여 불자들은 중국불교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혔다.

전남도청 불자회도 5~10일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항주 영은사, 소주 한산사, 상해 육불사 등 중국 불교성지를 참배했다.

김재홍(전남도청 지식기반산업과) 씨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불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입회원 기초교리 강좌

한전본사 반야회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불교기초강좌를 실시한다. 이 강좌에서는 불교예절, 사찰구조와 배치, 법회예식, 기초교리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상식을 교육한다.

일 불교기초강좌를 실시한다. 이 강좌

주제로 첫 강좌를 열었으며, 앞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형 구도부장은 "신입회원들이 절과 불교를 친숙하게 느끼고 올바른 실행활동을 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전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5. 원서교부및문의처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2. 학교소개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4. 문의처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